

독거노인의 행복과 경제활동의 참여욕구에 대한 융합 연구

이병임¹, 김두리², 임효남², 김광환^{3*}

¹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²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³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Convergence study on the happiness and participating desire of economic activity among elderly living alone

Byunglim Lee¹, Doo Ree Kim², Hyo Nam Lim², Kwang-Hwan Kim^{3*}

¹Dept. of Liber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³Dep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D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과 경제활동의 참여욕구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D시 노인복지관에 다니거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거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행복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들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컸다. 꼭 일을 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원하는 노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 그리고 경제 형편이 어렵지는 않지만 소일거리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으로 나뉜다.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지만 신체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활동을 원했다. 소득의 경우도 소득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와 현재의 생활비가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의 제도적인 지원정책을 선순환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독거노인, 경제활동 욕구, 행복, 죽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

Abstract The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re for economic activity and happiness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 Research participants were either go to the elderly community wellness center or volunteer at the center. The results were: First, it turned out that enjoying different programs and socializing with others at the community wellness center and the health of family were the factors of happiness to the elderly living alone. Second, the difference on the desire on economic activity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was significant. Three groups could be categorized: the elderly who wants economic income through jobs, others who were wealthy, and others who do not struggle with their finance but wanted to continue their economic activity through part-time jobs. In average, the desire for economic activity was high but they wanted 2 - 3 hours of labor per day, considering their physical condition. In case of income, there were two groups, who desperately wants more income, and others who feel their income is sufficient. This study suggested a virtuous cycle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o the elderly living alone in economic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Key Words : Elderly Living alone, Happiness, Economic Activity, Death, Focus Group Interview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6066807)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 (kkh@konyang.ac.kr)

Received June 11, 2018

Revised July 25,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1.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조건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에 사는 개념으로 가구의 의미가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변화되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1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독거노인 가구 또한 전체 가구의 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이 홀로 사는 경우를 우리는 독거노인이라고 부른다. 독거노인은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미혼, 혹은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거노인은 가족 동거 노인에 비해서 건강증진행위 및 신체적·정신적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의 정도도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남성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 보다 낮고 사회적 지원 역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독거노인은 생활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나 현재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3,4].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은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사회활동참여는 고독감을 낮춰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노인의 사회적 활동은 대략적으로 여가활동, 종교 활동, 생산적 활동, 자원봉사활동, 신체적 활동, 경제활동, 정신적 활동, 일상생활 활동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경제활동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참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건강, 사회참여, 경제적 보상이 선순환으로 노인들의 심신에 상호작용하고 있었다[6]. 노인에게 경제활동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뚜렷한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노후에 느끼기 쉬운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제거해준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시간에 맞는 적절한 취업기회의 제공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건강 및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활동 역시 노인의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통합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7].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서비스를 주는 자 보다는 서비스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자로 인식되어 왔지만 평생 동안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 사회적 활동 중 경제 활동과 봉사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8].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무력감, 죄의식, 실망감, 분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초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인지행동의 변화 등을 초래하였다[9]. 독거노인의 경제적 상실감은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것은 독거노인의 경제적인 측면의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독거노인들 중 신체적으로 건강한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이 향상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행복과 그 요인 그리고 경제활동의 참여욕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행복과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수행한 질적연구이다. 인터뷰는 질적연구 자료수집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일상의 대화나 의견교환과는 달리 특정 의미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1]. 질적연구에서 인터뷰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대상으로부터의 생생한 정보를 생산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만든 인위적인 성격의 대화라는 점이 일상적 대화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시 독거노인들의 행복의 정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거주하고 D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고 인터뷰를 거절하여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25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5명(20.0%), 여자 20명(80.0%)으로 여성 노인이 많았다. 나이는 71-80세가 21명(84.0%)으로 가장 많았고, 81세 이상 3명(12.0%), 70세 이하는 1명(4.0%)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4명(16.0%), 보통이라고 답변한 대상자가 13명(52.0%)이었으며, 나쁘다고 답변한 대상자는 8명(32.0%)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가 6명(24.0%), ‘보통이다’가 18명(72.0%), ‘나쁜 편이다’는 1명(4.0%)로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가 20명(80.0%)으로 절반 이상을 나타냈고, ‘하고 있다’가 5명(20.0%)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구분	N(%)
Gender	
Men	5(20.0)
Women	20(80.0)
Age	
Under 70	1(4.0)
71-80	21(84.0)
81 years old or older	3(12.0)
Health status	
Healthy	4(16.0)
Normal	13(52.0)
Unhealthy	8(32.0)
Interpersonal relation	
Good	6(24.0)
Normal	18(72.0)
Bad	1(4.0)
Religion	
Religion	16(64.0)
Non-religion	9(36.0)
Economic activity	
Do	5(20.0)
Do not	20(80.0)
계	25(100.0)

2.3 연구방법

2.3.1 질문개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 고찰을 참고하여 1차로 본 연구팀에서 문항을 작성하였다. 1차로 구성된 질문은 노인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치위생학과 교수 1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시된 질문은 ‘현재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나요?’ 등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중 답변에 맞는 추가 질문을 수행하였다.

2.3.2 포커스 그룹면담 진행

본 연구는 2018년 2월 독거노인 2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D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와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한 그룹당 5-6명씩의 4그룹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녹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구두 및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면담은 약 50-70분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녹취 뿐 아니라 연구자 분석에 사용될 연구자를 위한 메모도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행복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 관련 핵심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면담 내용을 필사하였고 필사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선정한 것을 연구팀에서 함께 읽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최종 주제어를 함께 도출하였다.

2.5 연구의 윤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소속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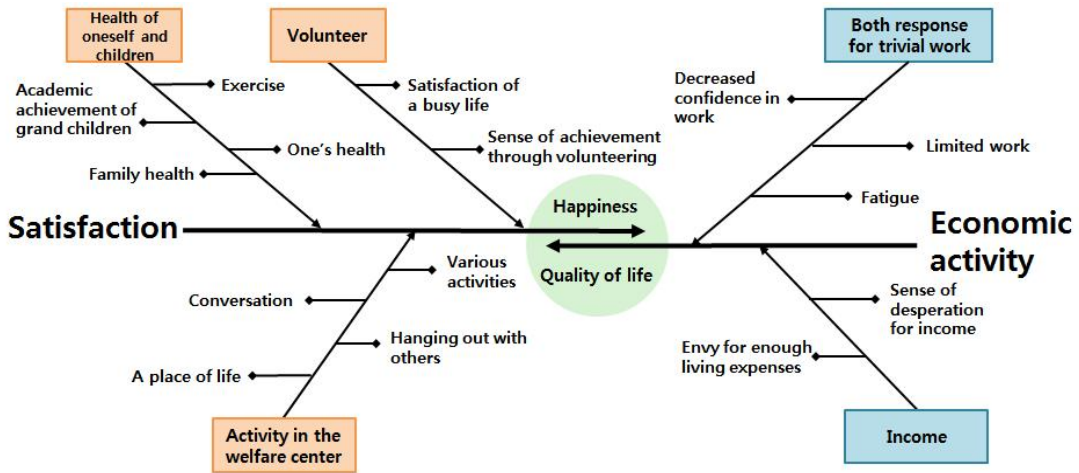


Fig. 1. Fac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의를 거쳐 승인(IRB No. KYU-2018-006-01)을 받았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행복과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행복과 관련된 주제는 ‘현재 생활의 만족’, ‘가족과 자신의 건강이 최고’, ‘복지관에서의 사회활동’, ‘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욕구와 관련된 주제는 ‘소일거리에 대한 양가적 반응’, ‘소득에 대한 절실함’으로 나타났다. Fig. 1

3.1 독거노인의 행복관련 요인

본 연구결과 첫 주제인 독거노인의 행복과 관련된 내용은 세부 주제로 ‘본인과 자식들의 건강’, ‘복지관에서의 활동’, ‘봉사’가 있었다. 혼자서 살아가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생활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대답이 많았다.

3.1.1 본인과 자식의 건강이 최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본인이 건강해서 운동도 하고 복지관에도 오는 것에 만족하며 자식들이 건강하고 손주들이 건강하면서 공부 잘하는 것을 행복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집에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고 그게 행복한 거지”

“내가 건강해서 아직은 돌아다니고 운동도하고 그게 행복하죠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게 어디예요”

“건강하게 여기 와서 운동도 하니까 서로 협조할 수 있고 또 아는 것도 배워가고 모르는 것도 배우고 이래서 굉장히 좋죠”

“손주들 건강하고 공부 잘 하는게 최고죠”

“나는 건강 밖에 안 바래요 나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그거, 그거 밖에 없어요 바라는건.”

3.1.2 복지관에서의 사회활동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복지관을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복지관에 와서 배우고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어울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이렇게 노니까 이게 참 좋아요 여기오면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다 같이 웃고”

“저는 여기 와서 주로 생활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왔다가 프로그램 뭐 하고 저녁에 가”

“저는 여기 와서 탁구치고 또 수업 들어가고 그런데 최고 행복해요 별거 없어요 집에 있으면 적적하고 얘기 할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와서 여러 사람 언니들하고 어울리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행복할 때 가 없어요”

3.1.3. 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봉사’를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어려우므로 봉사를 통해 일을 하고 싶어 하였다.

“봉사하라 도우미 하라 애들 집도 한 번씩 가느라 뛰어나다녀서 바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일 도와줄 수 있는거에 감사해요”

“복지관에서 받는게 참 많아요. 그래도 식당에서 점심 시간에 내가 수저도 봐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고생했다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그럴 때 기분 좋죠.”

“저는 봉사하고 싶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봉사 스스로 많이 해요.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나봐.”

“나는 조금 젊은 할머니니깐 그래도 도울 수 있을 때 나보다 조금 더 힘든 할매들 언니들 도와줘야지”

3.2 경제활동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감정은 이중적으로 나타났다. 세부 주제로는 ‘소일거리에 대한 반응’과 ‘소득’에 대한 반응이 있다. 한 가지는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제는 소일거리 밖에 못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는 것에 대한 회한이 엇보였다. 소득 역시 남편의 연금을 받거나 자식들이 충분히 생활비를 주는 경우와 혼자 생활비 전체를 충당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3.2.1 소일거리에 대한 양가적 반응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소일거리에 대한 의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과 나이와 체력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거나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약간 일자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놀고 일자리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나이에 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애길 못해 한 시간이면 두 시간 우리 격에 맞는 거면 따라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뭘 잘 한 다 자신이 없어 그래서 노동은 안 되고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서로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못해 업두를 못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자책할 때가 참 많아요. 혼자 살면서도”

“지금은 자신이 없어. 숨씨가 어디로 가버렸어. 나이

먹어서 다 가버렸어”

“나도 움직이니까 좋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집도 안 치워”

3.2.2 소득의 절실함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함에 있어 소득의 절실함에 대해서 호소하였다.

“옆의 할머니 도와드리는 것 조금 뭐 나오는데 그걸로 택도 없지요..고혈압, 당뇨 약값만해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20만원인가 얼마 주는 거 그거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해서 보탬이 되게끔 해 달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일하고 싶어도 뭐 기력도 없고 할 수 가 있어야지”

“여기 나오실만한 어르신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적으로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내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 맛있는 거 사먹고 그럴 때..”

“애들도 힘들니깐 애들한테 기댈 수는 없지요. 그냥 내가 아끼고 내가 즐기고 살아야지”

4. 고찰

본 연구는 독거노인들의 행복과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들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거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신체적 기능과 건강지각을 언급한 연구[5]와 노인의 행복요인으로 가정의 건강성,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상태가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12]. 또한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행복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순자와 전은화[13]의 연구에서 노인의 행복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 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들의 건강을 관리 해 줄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매일 복지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활동을 행복의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복지관이 하고 있다는 연구[7]와 일치하며 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9]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이 친한 친구와의 만남 또는 사회활동을 삶의 의미와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고[13],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행복감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14-16].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활동과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지원은 이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삶의 행복의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 중 '제일 좋을 때는 우리 강아지들(손주) 보는 날이지', '딸한테 전화 잘 안 오는데 한 번씩 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등의 답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독거노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행복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독거노인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관 등 사회적 커뮤니티의 역할이 다각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야 할 설이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관계 구축과 관련된 의(義)가족 및 친구 맺기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관계망과 독거노인의 집단운동 및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 프로그램 등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독거노인들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봉사를 통한 보람에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장명숙과 박경숙[17]의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봉사활동이었던 것과 같으며, 이러한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노후생활에서 능력제한으로 인해 갖게 되는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추후, 독거노인 삶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며,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경제활동과 소득에 대한 절실함의 욕구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타났지만 소일거리로 하루에 2-3시간 정

도의 일을 하고 싶어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이 없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일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므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젊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실버인재센터 등의 단체가 구성되어 고령자들의 능력과 시간에 맞는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고령자의 근무능력 보다는 필요(need), 욕구 등에 일자리 참여의 가치를 두고 있다[18]. 독거노인들에게 일은 활동할 수 있다는 건강과 젊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맺음 뿐 아니라 소득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년기의 경제활동이 생계육구의 기본적 요구 뿐 아니라 건강 유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18,19].

다섯째, 독거노인의 돌봄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요인의 통합적 접근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다양한 기존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시/도 기관과 협력적인 관례를 맺어 선순환적인 제도적, 물리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독거노인들은 자신과 가족이 건강하여 복지관에서 활동하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의 요인으로 삼았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독거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거노인의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의 제도적인 지원정책을 선순환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Y. S. Kim. (2014). The study of the impact of the family type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3), 400-429.
- [2] K. H. Suh & Y. S. Kim (2003).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9(1), 115-137.

[3] K. T. Kim & G. Park. (2000).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 153-168.

[4] S. He. (2003). *The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5] S. Cho & Y. Yoo. (2016).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ged people living alon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4), 35-59.

[6] S. Park. (2016). The effect of change in economic participation on health among korean elderl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7] H. Ann. (2011). A study on volunteer status of the elderly and activation plan - focused on Gwanju city -. Graduate school of Gwanju women's University

[8] K. Y. Yoon. (2007). *A study on quality of life among low income, alone-living elderly*. Kukje Theological Seminary and University, D.S.W.

[9] J. Seok & E. Jang. (2016).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2), 321-349.

[10] B. G. Park. (2014). The sense of loneliness as a moderator fo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los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living alon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3, 175-201.

[11] J. H. Kim, Y. S. Kim & J. Y. Kim. (2015). *Journey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Book Korea.

[12] I. S. Kwak. (2013). Study on Family Strength and Happiness of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5(1), 1-16.

[13] S. J. Lee & E. W. Jeon.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y Lives of the Elderly and Relevant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 113-131.

[14] O. J. Ha, H. K. Choi & E. J. Oh. (2017). Factors Predicting on Happiness Related to Ag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197-208.

[15] Y. E. Kim & Y. S. Lee.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people using welfare center on happi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4), 217-238.

[16] Y. S. Chong, S. A. Jo, J. S. An & Y. J. Jeong. (2012).

Effect of Family Relations as 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on Successful Aging In Korean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19-41.

[17] M. S. Chang & K. S. Park. (2012).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232-266.

[18] M. Jang. (2002). A study on activating employment to secure income for the ag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 N. Lee. (2011). A study on plans for activating the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for the elderl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ng - A University.

이 병 임(Byunglim Lee)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주관적 행복, 삶의 질, 소진, 치매, 노인
- E-Mail : kyclee@konyang.ac.kr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3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
- E-mail: kdr2015@konyang.ac.kr

임 효 남(Hyo Nam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암환자, 노인, 치매, 전문간호사, 삶의 질
- E-mail: hnlim@konyang.ac.kr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 E-mail: kkh@konyang.ac.kr